

최강의 우리 식 초대형방사포 개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국방공업 건설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개발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 식 초대형방사포를 연구개발해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과 현대전의 특성, 조선반도주변에서 극도로 첨예화되는 군사정치체제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국방공업을 세계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천재적인 예지와 특출한 과학적통찰력으로 새로 개발할 무기체계의 설계방안과 전술기술적제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병기가 탄생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24일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시험사격을 함께 지도하였다.

주체병기의 탄생을 위하여 그토록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 정력적으로 개발사업을 령도하여주시고 첫 시험사격은 꼭 자신께서 지도해야만 한다고 하시며 모든 일을 미루시고 또다시 이른 새벽 머나먼 날바다길을 달려오신 원수님을 뵈옵는 국방공업전사들은 원수님을 모시고 첨단군사과학기술의 높은 명마루를 점령하며 사회주의조선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을 과시하는 주체무기들을 련속적으로 개발완성해온 나날들을 격정의 눈물속에 돌이켜보면서 이번에도 반드시 단번성공하여 당과 조국앞에 커다란 기쁨을 드릴 불같은 열망과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

격명령을 내리시었다. 온 행성을 또다시 뒤흔들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만장약된 주체무기의 출현을 알리는 장엄한 폭음이 터져오르고 거대한 동체가 성공의 불꽃기를 내뿜으며 만리창공으로 솟구쳐올랐다.

시험사격을 통하여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기술적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것을 검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가 육성되고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재부이라고, 당에 충실하고 재능있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있기에 주체적국방공업은 끊임없이 강화발전될것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개발완성하시던 잇을수 없는 나날들을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회억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최악의 역경과 시련을 헤치고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시어 사회주의조국을 자위의 성세로 전변시켜주시고 그 어떤 동란에도 끄떡없을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애국실록은 조선로동당의 백색의 력사와 더불어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가 8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김재봉내각총리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도간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성원들, 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개회사를 박태성의장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2차회의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원이 하였다.

최룡해대원은 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법적무기로서의 혁명적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라고 말하였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여야 하며 국가기구체계와 국가기관들의 권능을 법적으로 보다 완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최룡해대원은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에서 국가기관들의 권능과 관련한 문제를 일부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라는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된대 대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념원의 승고한 발현으로 되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통성번영을 담보하는 만년대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결정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하여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된대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된대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규제한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 정리한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위

대한 법적무기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들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최룡해대원은 이번 수정보충하게 되는 사회주의헌법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본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김영대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용일대 의원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또한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세철대의를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의 제에 따라 손영훈을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하였다.

박태성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2차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위력한 무기로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제헌사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시어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는 한편 방위력강화에도 계속 큰 힘을 쏟고 있다.

우리 식의 주체무기들을 련발적으로 만들어 자위의 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다.

공화국에서 련속적으로 개발하는 주체무기들은 국가건설의 안정적환경마련과 조선반도의 지역적평화를 위한 강력한 보검으로 되고 있다.

평화는 강한 군력에 의해 담보된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예나 지금이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 하여 조선반도는 과거에 련강들의 치열한 각축전마당으로 되어 왔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이 터졌고 미일의 침략모의 끝에 《가쓰라-라프트협정》도 조작되었다.

조선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리적위치에 있는가 하는것은 세계를 전쟁의 불도가니속에 몰아넣을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총성이 8.15해방과 함께 조선반도에서 맺은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다.

민족의 피눈물나는 과거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공화국은 국가건설의 전 로정에 언제나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였다.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여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였다.

군력강화로 그처럼 첨예하고 긴장한 정세하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공화국의 존엄을 수호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 강국건설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에 의하여 출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은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을 배태하고있으며 전쟁은 예고없이 일어난다.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는것이 나라와 인민,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공화국은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돌리 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로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하시었다.

군력강화를 위한 국방공업을 21세기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전망목표와 중점목표, 전략적과업과 그 실천적방도들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무장장비개발의 총설계가 되시어 삼복의 무더위도, 엄동의 강추위도 가림 없이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위협천만 한 화선에 함께 계시며 첨단무기개발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천재적인 예지로 성공의 열쇠를 안겨주시고 예국의 님과 열과 정을 부여주시며 개발자들을 고무격려하시었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강행돌파하여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에 의하여 공화국은 남들이 수습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군사적기적들을 짧은 기간에 다발적으로, 련속적으로 이루어내어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르게 되었다.

공화국이 개발보유한 현대적인 각종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에는 국방공업발전에서 첨단기술과 새 력사를 펼치고 주체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심혈과 지도가 깃들여 있다.

이제 더는 그 어떤 세력도 조선의 생존권과 자주권, 발전권을 마음대로 침범할수 없게 되었다.

조선은 자기의 실제적인 힘으로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전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

얼마전 공화국은 세상에 없는 무기, 또 하나의 주체무기탄생을 세상에 알리었다.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끝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슴되는 군사적위협과 압박공세를 단호히 제압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시어 그 어떤 동란에도 끄떡없을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건설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자위의 성세, 평화의 강력한 보루로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

최강의 힘을 가진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에서 사람들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존엄도, 밝은 앞날도 있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확신하고 있다.

박영길

8월 24일은 공화국의 력사에서도 하나의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주제병기가 태어난 날이다. 세계적인 초대형방사포가 세상에 고고성을 울린것이다.

엄청나게 구경이 큰 새형의 방사포에서 뿜어져나와 시뮬컨 볼출기를 뿜으며 만리창공으로 기운차게 솟구쳐오르는 방사포란, 대지를 뒤흔드는 장엄한 폭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초대형방사포였다. 그 위력은 모두를 놀라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제병기의 탄생.

이는 나라의 국방공업을 세계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안오시어 설계방안과 전술기술적제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공화국의 사변적인 성과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시험사격에서는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모든 전술기술적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것이 검증되었다.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위력에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8월 24일은 정말 잊을수 없는 좋은 날이라고, 3년전 바로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전략적수단인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주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끝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슴되는 군사적위협과 압박공세를 단호히 제압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끝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슴되는 군사적위협과 압박공세를 단호히 제압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주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끝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슴되는 군사적위협과 압박공세를 단호히 제압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참으로 뜻깊은 날이 아닐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주제 105(2016)년 8월 24일, 바로 그날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전략적수단인 초대형방사포가 성공적으로 진형되는 사변이 일어났다.

잊을수 없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리대공을 꿰저며 장쾌한 비행운을 끌고 새겨가는 《북극성》탄도탄을 바라보시며 력사의 시련과 원수들의 온갖 도전에서도 억척같이 다지고자하는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응축된 힘의 거대한 폭발

이날 몸소 헌지

에 나오시어 새롭

고 위력한 주체무

기를 보아주시

이며 일대 시위라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힘이 솟아올라고 하시었다.

이날에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 결과를 통하여 공화국이 자위의 전쟁억제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 섰다는것이 현실로 증명되게 되었다.

비단 전략적수단인 탄도탄만이 아니었다.

런이여 날아오른 주체탄들은 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빼앗으려고 사상 류례없는 제재압박책동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랐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들을 강행돌파하시며 전략무기들을 개발완성하시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회억하시었다.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림없이 위협천만하고 포연이 자욱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찾고찾으며 힘과 용기를 부여주시고 지혜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만단사연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에 의하여 공화국은 그 어떤 동란에도 끄떡없을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보유했다.

전략적수단인 탄도탄이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때로부터 꼭 3년이 되는 지난 8월 24일 세계적인 초대형방사포가 태어나 온 세계를 다시한번 뒤흔들었다.

이날 몸소 헌지

에 나오시어 새롭

고 위력한 주체무

기를 보아주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무기라고, 우리의 짧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것은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고,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 일어난 사변적인 성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련속 성공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고있는 새로운 주체병기들도 그 하나하나가 다 천출물들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밑에 태어난것들이다.

최악의 역경과 시련을 헤치고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시어 공화국을 자위의 성세로 전면시켜주시고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애국실록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8월 102(2013)년 9월 어느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신것이였다. 여러 세대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에 대하여

자극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이미 약속한대로 모든 살림집들이 액정TV를 놓아주시는것과 함께 그릇세트를 보내주겠다고 하시었다. 여러 세대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에 대하여

주제 106(2017)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섬본교와 최전연지대, 산관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후대들을 위해 묵히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당 및

애국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해주신데 이어 이날 또다시 한생에 잊지 못할 인정을 돌려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당에서 격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

에 편리하게 살림집의 복도벽면에는 원형거울도 달아주자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공화국은 령도자의 대 해같은 더망의 손길로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행복도 미래도 다 보살펴주는 삶의 품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 인생의 닷을 내린 때로부터 열아홉해의 세월이 흐른 오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울인 은혜로운 사랑과 의리의 세계가 얼마나 웅심깊은가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술취는 화석》으로 불리며 절망과 죽음의 나락에서 헤매이던 비전향장기수들이 소생하여 오늘도 인생의 보람찬 삶과 행복을 향유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인덕의 세계가 안아온 품같은 현실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수십년세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옥중에 갇혀서도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꺾이지 지켜낸 민족의 장한 아들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통일의 길에 한몸을 다 바친 비전향장기수들이 인생의 영광과 행복을 다 누리도록 하시려 크나큰 심혈의 낮과 밤을 이어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희미해지는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욱더 생동하게 새겨지고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34년동안이나 남조선의 철창속에서 고생하던 리인모동지를 잊지 않고 기어올라왔다, 이렇게 하는것이 전사들에 대한 참된 령도자의 의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며 우리 당이 있는 한 남조선에서 고통받고있는 비

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당의 품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절결히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공화국으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하여 기울으신 로고는 끝이 없었다.

주제 89(2000)년 6월 어느날이

었다. 인공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들의 소원대로 모두 데려와야 한다고, 데려다 지금껏 누리보지 못한 행복찬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또 어느날에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30~40년동안 지조를 지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전향하겠다고 한다면 하면 감옥살이고통을 면할수 있었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어떤 유혹이나 강압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그들을 데려오면 최상으로 우대해주고 높이 내세우며 자랑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고결한 의리에 의하여 주제 89(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변적인 화폭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로부터 어언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서 맛보본 날과 날은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은총과 다스린 보살핌속에 인간의 존엄과 부럼없는 삶을 누리며 영광과 행복의 나날들이었다.

남조선의 감옥에서 수십년동안이나 용감하게 투쟁한 그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은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았고 조국통일상수상자들로 되었다.

살림집과 생활필수품, 갖가지 보약 등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하여 기울이신 각별한 사랑은 끝이 없었다. 희귀한 고기도 그들의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하시고 민족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라고 오복을 보내주시 세심한 손길, 삼복철이던 몸보신에 좋은 단고기와 눈오는 겨울이면 털내의와 털신, 털모자, 솜옷을 보내주시 뜨거운 은정, 생일을 맞을 때면 생일상을 보내주시 온혜로운 어머니의 사랑...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배려는 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제생의 불사약이 되고 인생의 고복에도 꽃을 피우는 활력소가 되었다.

꺼져가던 운명과 짓밟혔던 재능을 되찾은 비전향장기수들은 애국적열정과 창조적노력으로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있고 재능있는 박사, 작가, 미술가, 시인이, 음악가로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의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덕택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은 나라가 대국상을 당하고 비분에 잠겨있을 그날 남조선보다 큰 상심의 아픔을 안고 수에서 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고품어족과 식료품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과 건강을 넘려하시어 일일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정은 그들의 정기적인 료양과 휴양, 명승관광길에도 뜨겁게 어리었고 그들이 받아안은 생일상에도 깃들여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로망의 장하여 오를도 여성을 통일애국위업에 헌신하고있는것은 그들의 삶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과 보살핌이 있기때문이다.

《우리모두를 신념의 강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믿음을 한시도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통일애국성업실현에 미려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하여 심신을 다함것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의 한결같은 마음의 토로이다. 본사기자 리 설

은도금공예 《빨미라유적》

은도금공예 《빨미라유적》은 위대한 김일장군님께 주제 100(2011)년 2월 수리아국방상이 올린 선물이다.

수리아국방상은 수리아와 조선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발전이 변함없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의 마음에서 이 선물을 마련하였다.

수리아에서 가장 오랜 유적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빨미라유적을 새긴 이 선물은 수리아의 유구한 력사와 이 나라 인민의 재능을 보여주고있다.

나는 한때 끼리를 들 때 술가락과 저가락을 용도에 맞게 쓰지 못해 핀잔을 들곤 했다.

그때면 수십년세월 감옥생활에서 생긴 습관에 절로 허거픈 생각을 가졌었다.

어느날 밤잠머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선생님, 술가락이 있는데 왜 저가락으로 국을 드시니까?》 우리 집에 내어온 손님의 물음이었다.

열댓 보면 하찮은것 같았지만 일상 도덕생활이나 식사예의에서 그것들에 대한 일종의 가벼운 나무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가끔 감옥생활때의 습관탓에 고기국이나 냄세국이 밥상에 오르면 저가락으로 먼

선물의 직경은 31.5cm, 운두높이는 21.5cm이다.

국방상은 선물을 올리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수리아인민과 장병들의 뜻깊은 명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물에는 오랜 뿌리를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이 유적처럼 영원할것이라는 의미와 조선과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나 가려는 수리아군대 장병들의 의지가 담겨져있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수기

수저에 대한 이야기

저 저가락을 뜨고는 국그릇을 왼손으로 받쳐든 다음 국물을 망물마시듯 훑출 마시곤 한다. 물론 밥도 저가락으로 들었다. 보통의 상식을 벗어난것이었다.

언제인가는 우리 집에 온 중순내월 되는 어떤 친내에게 저가락으로 국을 든 내 모습이 하도 이상했는지 제 어머니의 귀에 대고 무엇이라 속삭였다.

그때 어머니는 그저 나를 보고 가버운 미소만 지을뿐이었다.

그때 처녀애가 밥상위에 있는 술가락을 내 손에 쥐여주

었다.

문득 나에게는 어린시절 왼손으로 술가락을 쥐면 어머니가 각근하게 오른손에 쥐여주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지긋지긋했던 감옥생활도 련상했다.

감옥에서는 새까맣게 때가 낀 참대저가락을 주었는데 그대로 쓰기에 너무도 역겨워 콩크리터벽에 갈아서 리용하곤 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후에 수감자들이 간수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리용된다고 하여 모두 회수되었다.

대신 장작개비에서 켜낸 나무저가락을 주었는데 그것이 부러지면 손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했다. 감옥안에서는 술가락을 주지 않았다. 사실 콩보리밥을 저가락으로 뜨는것은 형치 않았다. 그러므로 한알한알 입에 넣고 소금국에 떠있는 몇오리의 무우시래기를 저가락이나 손가락으로 건져먹고는 나머지 국물을 마셔야 했다.

씩 후에는 감옥에서 수저저가락을 리용했다. 시장에서 목재값이 오르자 감옥당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저가락대신 수저저가락을 보장했다.

이렇게 우리는 수십여년동

안 저가락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인간이하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옥중생활을 이겨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남쪽사회에서 온갖 옥중고초를 다 겪은 우리들에게 현대적인 주력으로부터 갖가지 생활용품이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것을 다 배려해주시고 행복한 삶을 향유하도록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그이께서 보내주시는 집기류에는 고급수저도 있다.

장군님의 다심한 정이 깃든 수저를 들 때마다 인자하신 그의 손길을 그려보곤 한다.

수저는 벌치않은 하나의 식사도구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는 너무도 편이한 눈물겨운 과거와 행복찬 오늘의 생활이 담겨있다고 말하고싶다.

얼마전에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경치아름다운 동해안의 원산에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가시며 휴양생활을 즐겼다.

휴양의 나날 우리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고결한 의리에 대해 다시금 가슴후덕게 느꼈다.

부연하건대 수저에 대한 이야기는 내 생활에서 있는 이야기들 중의 한토막이다.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가운데)와 가족들

통일애국의 열정을 위하여 (5)

조국통일을 위한 3대력량의 강화를 위하여

1960년대에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어 있었다. 외세와 남조선의 군사파쇼 《정권》은 공화국에 대한 무장도발과 침략전쟁준비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내외반통일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애국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력량과의 협력의 우위가 보장되어야 통일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강력한 통일력량을 마련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조국통일은 그만큼 더 빨리 실현되게 되고 반대로 통일력량을 마련하는 것이 더디면 더디수록 조국통일은 그만큼 더 늦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의 통일력량과 남조선의 통일력량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주제적력량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기본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하나로 뭉치고 통일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북남조선의 통일력량이 다같이 준비되어 단합된 힘으로

외세와 반통일매국집단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북과 남의 통일력량을 끊임없이 축적 강화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확대하고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듯 조국통일의 3대력량을 강화할 때 대한 방침은 조성된 정세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통일애력과 반통일세력과의 역량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총화에 기초한 탁월한 전략적 방침이었다. 또한 민족의 주제적통일애국력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할 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었다. 조국통일의 3대력량을 튼튼히 준비할 때 대한 방침은 제시됨으로써 온 겨레는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안아올 수 있는 위력한 지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은 북반부를 조국통일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쇼 《정권》의 가혹한 폭압속에서도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1966년 한해동안에만도 여러 나라들에 각종 대표단을 파견하고 다른 나라 대표단을 받아들여 호상 신뢰와 친선단결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였다. 공화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북과 남에서, 국제적범위에서 조국통일의 3대력량은 더욱 튼튼히 준비되어갔다. 본사기자 김영진

최근 공화국이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은 《강한 우리》니 뭐니 하며 적반하장으로 늘어대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만이 남북공동선언들의 철저한 실행을 위한 유일한 길》, 《남북간회담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력설하고 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전면적인 교착상태에 몰아넣는 장본인들의 가스통과 체면없는 궤변이며 일교의 가치도 없는 말장난이다. 오늘 엄중한 국면에 직면한 북남관계를 조인한 조정은 바로 남조선당국이 자초한 것이다. 지난해 북남사이에는 수십여 차례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었다. 특히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어 북남관계

로 배우로서의 기질을 타고났던 것 같다. 아버지는 품속에서도 북이 뭉뚱 울리는 속에 서슬푸른 걸을 비껴간 장군이 되어 달려드는 왜적을 삼대배듯 끌어눌러는 자신을 보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천성이면 무엇하랴. 아버지의 소박한 꿈을 실현시켜줄 사람은 누구도,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귀족과 육설만 뒤따랐다. 안타까움에 모태기교는 데 어날 우연히 만난 소학 교동창생이 동양극장의 대본 필사공자리를 소개하였다. (에라, 대본필사공이면 뭐래, 연극배우들을 불수라도

가소롭고 뻔뻔스러운 《대화》라 칭

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주로 바라는 겨레에게 커다란 희망과 고무를 주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침에 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의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행위서를 9월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앞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약속을 하고 뒤돌아앉아서는 북남합의정신에 위배되게 북침전쟁연습을 어느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부단히 벌여왔으며 동족을 반대하는 최신전장장비반입행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온 민족과 국제사회를 격동시킨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외세와 함께 남조선지역에서 공화국에 대한 공중성제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노린 《2018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여놓은 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올해 들어와서도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각종 명목의 전쟁장비반입행위를 벌여놓았으나 특히 지난 3월에는 《키 리졸브》합동군사

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이탈에도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끝끝내 강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당국은 《2019년 국방부업무계획》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미국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런이어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헌천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였던 2018년도보다 8.2% 늘인 것도 모자라 얼마전에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그보다 8% 증가시켜 《국회》에 제출하였다.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서의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면서 《공통선언리행》과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대결소동은 지난 시기 대결과 전쟁을 본연으로 삼던 보수 《정권》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 계절이 바뀌듯 대화국면이 저절로 오리라고 망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북침전쟁과 무력충격동에 광분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규탄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한다. 정종문

말려나가 《해방만세!》를 목이 쉬도록 부르기도 못할 것이다. 《중배, 우리 이제부터 마음껏 연극을 해보자.》 아버지는 친형처럼 따르던 황철단장은 손을 으스스지게 틀어잡았다. 해방, 이달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던가. 아버지의 심장으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올라 흘러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뜻밖에 차레된 두부장사군역을 원만하게 수행하여 드디어 배우가 되었지만 일체의 발골미에서 아버지의 꿈은 그 시절엔 누구나 그러하듯이 량만적인 꿈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연극에 대한 엄격한 검열제도를 세우고 그 배역을 조종한 민족적색채를 띠기만 하여도 가져들이고 공연을 중지시켰다. 그 다음날부터 곧게 닫힌 극장문앞에서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짓는 배우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엔 그들의 수슬픈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가닥의 희망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뛰어다녔다. 후날 유명한 연극배우로 널리 알려진 아버지의 배우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속에는 태음민으로 알려졌지만 실지 부모들이 지어준 본래 이름은 김중배였다. 아버지가 이름을 바꾼다는 사연이 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아버지는 극단배우들과 함께 거리로



조국해방 70돐 기념 민족통일대회 자주통일결의대회 (2015년 8월 15일)

나는 얼마전 《통일신보》로부터 아버지(태음민)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도 어느덧 반세기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류수같은 세월은 평범한 배우에 불과했던 아버지에 대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게 한다. 하지만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의 생애는 온정같은 우리 공화국의 품속에서 면면히 이어지고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이 글을 쓴다. * * * * * 이제 내 나이에 어느덧 예순고개를 훨씬 넘은지라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하고 조르는 귀여운 손녀들을 거느리고 한가로이 거리를 거닐 때가 드문하다. 그럴 때면 울망출망 우리 다섯자매들을 데리고 아침달리기를 신나게 하며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심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에 짝 차오르도록 떠오른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값진 삶을 누린 인기가 있는 배우였다. 지금 세대들은 태음민 하면 잘 모를수도 있었지만 예술평화애 나오는 《놀부》라고 하면 절로 쏟아지는 웃음속에 제 기억해낼 것이다. 언제 아가와 부모의 세상에도 종이 《음식》을 올려놓는 불효자식, 아버지가 물려준 집과 재산을 독차지하고 마음속 착한 동생을 빈몸으로 내쫓는 매덕한, 《보은박씨》의 도움으로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동생이 심술스러 고의적으로 제비의 다리를 꺾어놓았다가 그 제비가 물어 《보수박씨》의 징벌을 받는 인간... 이렇게 아버지는 관중들에게 웃음을 주곤 한 명배우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민족분열의 아픔이 크게 자리잡고있는데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있다. 아버지는 공화국에 들어올 때 남쪽에 처와 두 자식을 남겨두고 왔다. 하기에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남쪽에

두고온 혈육들에 대해 늘 입버릇처럼 의우시곤 하였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유상오빠와 선미언니(아버지가 남쪽에 두고온 자식들의 이름이 김유상, 김선미이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아마 지금쯤은 일흔이 넘었을 것이다. 내가 조묘할 때 아버지는 《이제 조국이 통일되면 남쪽에 있는 오빠와 언니를 만나러 가자.》라고 자주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없는 나의 마음도 저절로 서글퍼지곤 했는데 지금도 그때 일이 눈에 선하다. 혈육의 정이란 참 이상아룩한 감정이다. 그들의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도 그림고 보고싶고 눈물이 나니 말이다. 나는 아버지의 가슴속에 용용히 품어키친 통일에 대한 절절한 소망에 대한 아기를 하기에 앞서 운명의 선례에 대한 말을 먼저 하려고 한다. 누구나 인생을 논할 때면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다. 한것은 인생길 그 자체가 수많은 선택의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에 대한 선택, 직업에 대한 선택... 이 모든 선택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운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꽃밭에 오래 있으면 향기를 덜 느끼듯이 나를 비롯해서 행방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 해방후 북잡다한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사람마다 운명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으며 더우기 그 선택에 대한 운운이 되었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화발에 짓눌려 신음하던 1916년 11월 서울시 종로구에서 시계수리공가정의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서울 남대문동의 어느 한 시계방에서 시계수리공으로 일하고있던 할아버지의 월급은 온 가족이 살아

나라일은 백성들의 신세란 상가집 개만도 못한 것이라 청운공립보통학교(당시)를 겨우 마친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짬뽕이 배운 기술을 밀친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시계방에 수리공으로 들어갔다. 눈썰미있고 일손이 여물었던 아버지는 까다로운 시계수리의 리치를 인차 깨닫고 이악스레 일하여 첫 월급을 타자마자 집으로 냐다 달려왔다. 그리고는 홀리내리는 땀을 닦을 때도 않고 어머니(나의 친할머니)에게 자랑하였다. 《어머니, 나 연극배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뭐, 연극배우?...》 《아닌밤중에 연극배우는

《?...》 감옥살이로 왜놈들에 대한 울분이 머리끝까지 들어찬 만행이니 두눈에 왜불이 일어난 것만 같았다. 목구멍이 모도청이라 당장 입에 넣을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어려운 생활안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속에서 아버지는 가슴속에는 언제부러진 연극배우가 되고 싶은 욕망이 움썩거렸다. 아버지는 조용한 틈을 타서 어머니(나의 친할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 나 연극배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뭐, 연극배우?...》 《아닌밤중에 연극배우는

로 배우로서의 기질을 타고났던 것 같다. 아버지는 품속에서도 북이 뭉뚱 울리는 속에 서슬푸른 걸을 비껴간 장군이 되어 달려드는 왜적을 삼대배듯 끌어눌러는 자신을 보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천성이면 무엇하랴. 아버지의 소박한 꿈을 실현시켜줄 사람은 누구도,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귀족과 육설만 뒤따랐다. 안타까움에 모태기교는 데 어날 우연히 만난 소학 교동창생이 동양극장의 대본 필사공자리를 소개하였다. (에라, 대본필사공이면 뭐래, 연극배우들을 불수라도

달려나가 《해방만세!》를 목이 쉬도록 부르기도 못할 것이다. 《중배, 우리 이제부터 마음껏 연극을 해보자.》 아버지는 친형처럼 따르던 황철단장은 손을 으스스지게 틀어잡았다. 해방, 이달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던가. 아버지의 심장으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올라 흘러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뜻밖에 차레된 두부장사군역을 원만하게 수행하여 드디어 배우가 되었지만 일체의 발골미에서 아버지의 꿈은 그 시절엔 누구나 그러하듯이 량만적인 꿈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연극에 대한 엄격한 검열제도를 세우고 그 배역을 조종한 민족적색채를 띠기만 하여도 가져들이고 공연을 중지시켰다. 그 다음날부터 곧게 닫힌 극장문앞에서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짓는 배우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엔 그들의 수슬픈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가닥의 희망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뛰어다녔다. 후날 유명한 연극배우로 널리 알려진 아버지의 배우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속에는 태음민으로 알려졌지만 실지 부모들이 지어준 본래 이름은 김중배였다. 아버지가 이름을 바꾼다는 사연이 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아버지는 극단배우들과 함께 거리로



태음민 선생

심했다고 말해주었다. 태음민... 태음민... 나의 할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퍼머너리스질부터 림름한 청년으로 자란 오늘까지 사랑받아 정을 담아 불러오던 이름자를 본의아니게 잊어야 하는 허전한 마음을 다소나마 메워줄만큼 뜻이 깊은 이름이었던 것이다. 김씨집안의 넷째아들 김중배는 이렇게 죽보아도 없는 태음민으로 되고말았다. 무절 많은 운명속에 아버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름을 고쳤다고 해서 운명이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김경선공을 피했다니던 나날 아버지는 절세의 예극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북조선을 몸시 동경하게 되었고 새 조선의 연극활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극장무대에서 자기의 소박한 소원을 이루고싶은 충동을 누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드디어 결심하고 뜻을 같이하는 연극인들과 함께 용약 38° 선을 넘어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때가 1948년 8월이었다고 한다. 새로 이름을 고친 아버지에게는 극적인 인생전환의 계기였다. 아버지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1948년 여러 연극인들과 함께 북으로 왔다. 나의 배우생활에서의 방향은 당의 올바른 문예정책에 의하여 활짝 꽃피었다. 나의 세계관형성에 있어 이 당시의 생활은 획기적인 시기로 되며 정치적자각의 시기로 된다. ...》 아버지는 이렇게 공화국의 품에서 새생활을 시작하였고 비로소 제 이름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때를 회상하며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그때 내가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아마도 내 인생은 가을날 저녁 노을처럼 스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니, 오늘과 같이 행복의 단상은커녕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까.》 《태음민》으로 부르기로 결



조선예술영화 《홍부전》의 한 장면

긴장을 격화시키는 최신무장장비도입소동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이 최신군사장비도입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군부는 202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40대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끌어들이 계획함에 8월 말 현재 6대를 총청부도청주공군기지에 들여왔다. 앞으로 11월에 2대, 12월에 3대를 연속 끌어 들여 올해 중에 10여대를 확보하게 된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이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대결선언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사업은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박근혜집권시기에 시작되었다. 2014년 당시 군부호전세력들은 《대북선제타격》체제인 《킬체인》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2021년까지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67억 2000여만US\$를 들여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놓고보면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을 일삼아 온

것 부정부패와 《국정》 통탄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종말과 함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사업도 적폐의 대상으로 이미전에 자기의 사명을 끝내야 함이 마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는 동족과 기어코 해볼 야심기에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는것이다. 남조선군부가 친문학적적수의 돈을 뿌려가며 스텔스 전투기들을 끌어들이는 여기에는 유사시 공화국의 전지역을 선제타격하는데 있다.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도 최신형에이더와 공중대지상미사일, 합동직격탄, 정밀유도활강폭탄 등 각종 타격무기들을 최대 8.11까지 탑재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유사시 공화국의 반항공방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시켜 평양을 비롯한 주요대상들을 불의에 정밀타격하고 《북핵파 란도 미싸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리용하게 될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군부는 의세와 야합하여 《연합지휘소훈련》을 강행하면서 공화국의 전지역을 《집정》, 《통제》하기 위한 《안정화작전》연습까지 로골적으로 벌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당국이 동족을 노린 스텔스 전투기들을 끌어들이면서 《북이 리해할 필요가 없다.》, 《북을 남두어 둔것이 아니다.》고 변명하는것은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격의 뻔뻔스러운 궤변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남조선군부당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은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인디아-태평양전략》에 추종하는것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위협하며 조선반도를 주변나라들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열강들이 이 땅에서 각축전을 벌였던 19세기말-20세기초의 일들을 지금도 기

억하고있다. 이 땅에 스텔스 전투기를 끌어들이는 남조선군부당국의 행태는 조선반도에 세력을 뻗치려는 침략적인 의세에 간섭의 빌미를 주는 행위로서 쓸개빠진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북침전쟁연습과 최신무장장비도입에 열을 올리면서 친연스럽게 평화와 대화에 대해 떠드는 파렴치한 태도는 그들이 건전한 사고와 리성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남조선군부당국의 가중되는 군사적대행위는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화국의 최근 군사적조치들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준다. 공화국을 저냥한 북침전쟁연습과 최신무장장비도입강행에는 옹당한 대가가 뒤따르기마련이다. 온 겨레가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있는 때에 최신무장장비도입으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남조선군부당국의 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을 계기로 각계층의 반일투쟁이 더 한층 고조되고있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750여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아베규탄시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초불투쟁을 벌였는가 하면 광주, 대전, 부산, 경상남도 등 전지역들에서도 아베규탄시행동, 아베정권규탄문화제, 일본상품배척운동 등 다양한 형식의 반일투쟁이 벌어지고있다. 투쟁참가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박근혜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체결한 《적폐협정》, 《한》반도의 령경제체와 남북분단을 고착시킨 《대결협정》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협정을 파기한것은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선 정당한 행사》, 《초불시민이 이룩한 승리》 등으로 적극적인 지지리장을 표명하고있다. **이와 함께 《아**

베규탄시행동》을 비롯한 투쟁단체들은 일본의 경제침략회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회, 군국주의부활적지를 위해 초불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당

그러데 민심의 이런 결결한 대일결산지와는 어긋나서 소리가 남조선집권층내에서 울려나와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결으로는 대일강경립장을 취하고 《자주적결정》을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일본것들과의 리합을 추구하면서 상진의 비위나 맞추는 등 이중적이고 비굴한 행태를 보이고있는것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

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결정을 재검토할수 있다고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하고있는것이다. 《친일적폐청산》 구호를 들고 반일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 각계층 민심을 거스르는 배신행위이다. 외세의종정책에 매달리면 협의 길은 자기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오만심과 파렴치성을 더욱 부추기는 자멸의 길이다. 외세의종정책에 매달리면 차례질것은 쓰디쓴 오욕과 치욕뿐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얼마전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아베내각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방사성오염수 100만t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알려진다싶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는 수많은 고준위방사성물질이 생겨났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110만t이상의 방사성오염수를 저장하기 위해 만든 1000여개의 대형물탱크들의 저장능력이 2020년이 되면 한계에 도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아베정권이 넘쳐나는 방사성오염수를 자연환경과 사람들에 피해가 가지 않게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그대로 태평양에 버리려고 획책하고있다는것이다. 그린피스의 환경보호전문가들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면 남조선은 방사능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본이 방사성오염수방류를 강행할 경우 몇달만에 제주도부근 해역까지, 1년안에 조선동해 전 수역이 오염된다고 지적한것이 이를 증명해주고있다. 그러나 이미 남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방사능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있는 형편이다. 밝혀진데 의하면 매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들어오

는 100만t이 넘는 산업폐기물중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는 24건이나 되며 원자력발전소사고가 난 후쿠시마원전 주변을 오고가는 일본선박들이 균형을 보장하고 여기서 배에 채워넣은 오염된 바다물을 남조선의 항구들에 들어와 쏟아버린것만도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t이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일정은 남조선당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오염수 처리계획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처리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은 나와있지 않다.》며 오만하게 높아내고있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뜨고 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고도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은 삼나라족속들이 오늘날에는 방사성오염수로 핵재난을 퍼부으려고 날뛰고있으니 그들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천년속죄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야수의 무리들이다. 온 겨레는 반만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발전시켜온 삼천리구경상산과 맑고 푸른 우리 바다를 왜나라의 야만들이 더럽히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리려연**

지난 8월 22일 남조선당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진보련합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각계층은 《초불민심의 승리》라고 하면서 협정파기결정을 환영해나섰으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력사외교, 과거범죄의 사죄와 배상거부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응해나갔다고 다짐하고있다. 하지만 하버가 무너지는 《피변》이 일어났듯 《안보가 희생당했다.》, 《지소미아파기가 아니라 남북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악을 써대는 무리가 있으니 다름아닌 《자한당》을 위시한 극우보수파계리들이다. 《자한당》 것들은 협정의 파기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심각한 안보위기로 몰아가고있다.》, 《동맹을 위협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있다.》며 피대를 돌구는 가 하면 《바른미래당》 패들 역시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안보협력의 파괴》라며 비친칭을 두루

고있다. 황교안은 《긴급안보련석회의》까지 열어놓고 《협정종료에 따라 북이 만세를 부를것》이라고 지껄이다못해 25일에는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외교, 안보고립결과는 북의 끝없는 도박과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황당무계한 나발까지 불어대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결정은 일본반동들의 후안무치한 경제침략행위를 반대하여 정의로 운 반일항전에 떨쳐나서고 보수세력들이 남겨놓은 온갖 적폐들을 남조선민심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안아온 결과이다. 자라가 인정하듯이 근사대국화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에게 조선반도제침의 날개를 달아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것이었다.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외세의 배후조

종과 부추기에 따라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 비밀리에 추진되어왔지만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기운과 《밀실추진》이라는 거센 비난에 부딪쳐 2012년 6월 서명을 눈앞에 두고 그 체결이 취소된바 있다. 그러나 왜왕에게 철서까지 바치며 친일을 맹세한 《다가까 마사오》(박정희)의 매국적인 체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민족반역배인 박근혜는 《국정통탄》으로 남조선 각계의 퇴진요구가 비발치는 속에서도 2016년 11월 끝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친일망당을 저질렀다. 남조선인민들이 《굴욕적인 대국협상》,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강력히 규탄배격하였으며 더우기 박근혜가 초불민심의 탄핵심판으로 감옥에 끌려가있고 적폐청산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는 오늘 역도년이 지저분 최악의 매국적책종의 적폐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은 옹당하다. 그럼데 저들의 원조가 저지른 매국적외교에 대해 석고대죄할 대신 천년속죄의 반역적공조를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횡설수설하는 보수세력야말로 추악하기 그지없는 왜나라파계리들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국배적적성격과 침략대용어로 하여 그 파기가 더욱 당연한것이다. 들여다보면 알수 있듯이 협정의 기본파괴는 바로 공화국이다. 동족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도발을 목적으로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야말로 온 겨레의 생명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전쟁범죄적이고 침략협약이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발표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이 온 민족의 지향으로 되고있는 시대와 력사의 흐름에 비

추어볼 때 이따위 전쟁협정이 존재한다는것은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정면도전에로 된다. 그럼데 《자한당》을 주축으로 하는 남조선의 극우보수파계리들은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 《개란스라고 분노한다.》, 《북만이 좋아할것》이라는 나발들을 늘어놓으면서 협정파기를 결사반대하고있으니 이자라도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민족을 등진 정치사생아》, 《친일이 뼈속까지 들어찬 토착왜구》라고 지탄받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보수세력의 망동에선 삼나라족속들과 결탁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박근혜역도의 친일매국범죄를 정당화하고 외세에게 아무추종하여 재침전야욕을 실현해보려는 비렬한 흉심도 깔려있다. 하지만 사악한 일본반동들에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째 섬겨버리지 못해 발광하는 보수적책거리의 추태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현주**

쓸개빠진 친일매국노들의 추태

《정치보복정부》, 《국민들은 모두가 속았다.》고 하면서 《과파정권타도》를 제쳐놓았다. 그런가 하면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해야 《정권》교체를 실현할수 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이 아닐수 없다. 《자한당》이 반민족적, 반동일적외교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받고 시대밖으로 밀려나 허우적대고있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만도 《자한당》 패들의 반공화국대결망동과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세가 긴장되어 친정위험이 초성되면 정세가 전제되고 녹아나는것은 민생뿐이다. 《자한당》의 《안보》라평은 민심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자한당》 패들의 동족대결망동에 등을 돌려주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 각계층은 일본의 경제보복행동에 맞장구를 치며 당국의 대일강경립장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있는 《자한당》을 아베일당과 한족속으로 몰아대면서 친일적폐청산과 《자한당》해체투쟁을 벌리고있다. 물에 빠지면 지루레기도 잡는다고 최악의 궁지에 몰린 《자한당》 패들은 또다시 《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매달려 살길을 열어보려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적당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배척기운을 판데로 돌리고 《보수대통합》으로 파벌의 위기에 서 벗어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는것이 《자한당》 패들의 속심이다. 그러나 제가 초래한 민심

의 규탄배격을 그런 어울리지도 않는 《장외투쟁》방법으로 해소할수 있겠는가. 《장외투쟁》은 《자한당》의 파멸을 재촉하는 기록제로나 될뿐이다. 명분없는 《안보팔이》와 친일반역망동, 역스러운 정정으로 민심의 버림과 배척을 받고있는 주체에 권력야욕에 환장한 권력자의 자리를 강림한 전두환역도는 심입이 아닌 박정희의 친일매국기질 그대로 바다 건너 일본상전에게 갖은 아부와 굴종을 일삼았다. 전두환의 예비를 비롯한 그의 족속들모두는 일신의 향락과 더러운 권세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가 일제에 먹히고 민족이 매수난을 겪던 그 시기에 매국배족을 자칭하고나선 친일매국노들이었다. 독초뿌리에서 독과가 돋기 마련이라고 친일매국노의 집안에서 역적의 피줄을 타고난 전두환은 《호송리개대부》인 일본군 《토비행》을 따라 일본군 《토비행》을 따라라더니 전심부름을 도맡아해주고 왜왕을 위해 《멸사봉공》할것을 다짐하고 일제의 《소년합동병》이 될것을 청원하는 등 친일주주로서의 잔뼈가 굵어왔다. 전두환이 얼마나 추악한 친일주주인가는 아래의 사실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1980년 4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일본 대학의 한 우익교수를 서울로 초청해놓고 일제침

략군의 군가 《토비행》을 일본말로 류창하게 불러 그를 감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토비행》으로 말하면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반일독립투사들을 《토비》하러 다니던 일본군 《토비행》들이 일본에서 50대이상의 사람들이아도 겨우 회상할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일본군가였다. 전두환은 이런 군가를 불러대는것으로서 자기의 골통속에 친일매국사상이 짙들어차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었다. 이렇듯 철처한 친일주주였기에 전두환은 1981년 8월 일본-남조선 《의원련맹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보장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바다는 없는것과 같으므로 같은 령도에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제쳤다.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한 전두환의 쓸개빠진 소리는 과거 일제가 조선을 영인토록 식민지로 만들고있던 1930년대 중엽에 퍼뜨린 《내선일체》론의 복사판과도 같았다. 이처럼 친일망발을 마구 내뿜는 전두환은 실제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일본에게

《유신》독재자가 종말을 고한 후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12.12군국쿠테타와 5.17야소폭거, 광주대학살 등 갖은 범죄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강림한 전두환역도는 심입이 아닌 박정희의 친일매국기질 그대로 바다 건너 일본상전에게 갖은 아부와 굴종을 일삼았다. 전두환의 예비를 비롯한 그의 족속들모두는 일신의 향락과 더러운 권세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가 일제에 먹히고 민족이 매수난을 겪던 그 시기에 매국배족을 자칭하고나선 친일매국노들이었다. 이렇듯 철처한 친일주주였기에 전두환은 1981년 8월 일본-남조선 《의원련맹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보장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바다는 없는것과 같으므로 같은 령도에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제쳤다.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한 전두환의 쓸개빠진 소리는 과거 일제가 조선을 영인토록 식민지로 만들고있던 1930년대 중엽에 퍼뜨린 《내선일체》론의 복사판과도 같았다. 이처럼 친일망발을 마구 내뿜는 전두환은 실제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일본에게

방하고 남조선을 일본화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1980년말에 벌써 제주도 를 려던일이 드나들수 있는 《자유지대》로 만들어 재침의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게 태양의 문을 활짝 열어준 전두환은 1982년에 부산의 일부지역과 알바다를 일본판광업체에 도박장, 매음장소로 바꾸고있으며 1983년 5월부터는 일본인들의 남조선에 대한 《출입권편의 확대》조치를 또다시 취하여 한번 받은 려권으로 계속 남조선에 드나들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두환의 집권시기 그 무슨 《대표단》, 《조사단》, 관광파의 명칭이아니 해마다 100만명의 일본인들이 남조선에 밀려들어와 제방처럼 활보하며 다녔으며 남조선은 일본콜과 일본노래, 일본노래, 일본영화 등 왜색왜풍이 더욱 판을 치게 되었다. 일본파의 《운명공동체》를 제창하고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떠든 전두환의 친일매국적행태는 1983년 1월 일본총리 나카소네의 남조선행각을 통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전두환은 광화문과 세종로 등 서울의 곳곳에 일장기를 띄우고 수많은 경찰병력을 내몰아 어마어마한 경

계진을 펼쳤으며 나카소네가 기여드는데 격분하여 투쟁에 나선 각계층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여 전철속에 끌어넣는 망동을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남조선에 기여든 나카소네와 2차례의 단독회담, 1차례의 공식회담을 통하여 《안보선인 새로운 높은 차원》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결락을 강화할공공기를 벌리었다. 그 결과는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작, 《두개 조선》의 고착화, 군사적인 협력의 강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12개 항목의 《공동성명》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나카소네를 환영하는 성대한 《미녀절대항연》을 베푼 전두환은 지난날 일본에서 널리 불리우던 퇴폐적인 류행가를 부르다못해 《나카소네 만세》를 세번이나 목이 터지게 웨치는 쓸개빠진 추태를 부리었다. 일본상진의 손발이 되어 나라를 팔아먹은 악명높은 《을사외적》들을 짚적벽을 회세의 친일매국노인 전두환이와 같은 역적들을 조장으로 하여 친일매국의 기질을 이어받은 《자한당》이 지금도 친일사대매국행위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이상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주광일**

얼마전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반 《정부》 집회가 벌어졌다.

《자한당》 패들이 또다시 벌려놓은 《장외투쟁》이라고 한다. 이번에 《자한당》 패들은 《장외투쟁》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일부 당수속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조건없이 집회에 참가할것을 강요하였는가 하면 집회에 참가하는 당원들이 자기가족과 친척, 주변의 보수적인 주민들까지 동원시키도록 하였다.

집회에서 《자한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라경원을 비롯한 당내 우두머리들은 헌 《정부》 이후 2년만에 모든것을 무너졌다. 야당은 《말살의 대상》, 보수층을 《적폐》로 몰아가는

《정치보복정부》, 《국민들은 모두가 속았다.》고 하면서 《과파정권타도》를 제쳐놓았다. 그런가 하면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해야 《정권》교체를 실현할수 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유신》독재자가 종말을 고한 후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12.12군국쿠테타와 5.17야소폭거, 광주대학살 등 갖은 범죄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강림한 전두환역도는 심입이 아닌 박정희의 친일매국기질 그대로 바다 건너 일본상전에게 갖은 아부와 굴종을 일삼았다. 전두환의 예비를 비롯한 그의 족속들모두는 일신의 향락과 더러운 권세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가 일제에 먹히고 민족이 매수난을 겪던 그 시기에 매국배족을 자칭하고나선 친일매국노들이었다. 이렇듯 철처한 친일주주였기에 전두환은 1981년 8월 일본-남조선 《의원련맹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보장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바다는 없는것과 같으므로 같은 령도에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제쳤다.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한 전두환의 쓸개빠진 소리는 과거 일제가 조선을 영인토록 식민지로 만들고있던 1930년대 중엽에 퍼뜨린 《내선일체》론의 복사판과도 같았다. 이처럼 친일망발을 마구 내뿜는 전두환은 실제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일본에게

방하고 남조선을 일본화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1980년말에 벌써 제주도 를 려던일이 드나들수 있는 《자유지대》로 만들어 재침의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게 태양의 문을 활짝 열어준 전두환은 1982년에 부산의 일부지역과 알바다를 일본판광업체에 도박장, 매음장소로 바꾸고있으며 1983년 5월부터는 일본인들의 남조선에 대한 《출입권편의 확대》조치를 또다시 취하여 한번 받은 려권으로 계속 남조선에 드나들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두환의 집권시기 그 무슨 《대표단》, 《조사단》, 관광파의 명칭이아니 해마다 100만명의 일본인들이 남조선에 밀려들어와 제방처럼 활보하며 다녔으며 남조선은 일본콜과 일본노래, 일본노래, 일본영화 등 왜색왜풍이 더욱 판을 치게 되었다. 일본파의 《운명공동체》를 제창하고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떠든 전두환의 친일매국적행태는 1983년 1월 일본총리 나카소네의 남조선행각을 통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전두환은 광화문과 세종로 등 서울의 곳곳에 일장기를 띄우고 수많은 경찰병력을 내몰아 어마어마한 경

계진을 펼쳤으며 나카소네가 기여드는데 격분하여 투쟁에 나선 각계층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여 전철속에 끌어넣는 망동을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남조선에 기여든 나카소네와 2차례의 단독회담, 1차례의 공식회담을 통하여 《안보선인 새로운 높은 차원》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결락을 강화할공공기를 벌리었다. 그 결과는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작, 《두개 조선》의 고착화, 군사적인 협력의 강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12개 항목의 《공동성명》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나카소네를 환영하는 성대한 《미녀절대항연》을 베푼 전두환은 지난날 일본에서 널리 불리우던 퇴폐적인 류행가를 부르다못해 《나카소네 만세》를 세번이나 목이 터지게 웨치는 쓸개빠진 추태를 부리었다. 일본상진의 손발이 되어 나라를 팔아먹은 악명높은 《을사외적》들을 짚적벽을 회세의 친일매국노인 전두환이와 같은 역적들을 조장으로 하여 친일매국의 기질을 이어받은 《자한당》이 지금도 친일사대매국행위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이상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주광일**

《유신》독재자가 종말을 고한 후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12.12군국쿠테타와 5.17야소폭거, 광주대학살 등 갖은 범죄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강림한 전두환역도는 심입이 아닌 박정희의 친일매국기질 그대로 바다 건너 일본상전에게 갖은 아부와 굴종을 일삼았다. 전두환의 예비를 비롯한 그의 족속들모두는 일신의 향락과 더러운 권세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가 일제에 먹히고 민족이 매수난을 겪던 그 시기에 매국배족을 자칭하고나선 친일매국노들이었다. 이렇듯 철처한 친일주주였기에 전두환은 1981년 8월 일본-남조선 《의원련맹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보장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바다는 없는것과 같으므로 같은 령도에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제쳤다.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한 전두환의 쓸개빠진 소리는 과거 일제가 조선을 영인토록 식민지로 만들고있던 1930년대 중엽에 퍼뜨린 《내선일체》론의 복사판과도 같았다. 이처럼 친일망발을 마구 내뿜는 전두환은 실제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일본에게

제 무덤을 파는 《장외투쟁》

《정치보복정부》, 《국민들은 모두가 속았다.》고 하면서 《과파정권타도》를 제쳐놓았다. 그런가 하면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해야 《정권》교체를 실현할수 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이 아닐수 없다. 《자한당》이 반민족적, 반동일적외교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받고 시대밖으로 밀려나 허우적대고있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만도 《자한당》 패들의 반공화국대결망동과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세가 긴장되어 친정위험이 초성되면 정세가 전제되고 녹아나는것은 민생뿐이다. 《자한당》의 《안보》라평은 민심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자한당》 패들의 동족대결망동에 등을 돌려주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 각계층은 일본의 경제보복행동에 맞장구를 치며 당국의 대일강경립장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있는 《자한당》을 아베일당과 한족속으로 몰아대면서 친일적폐청산과 《자한당》해체투쟁을 벌리고있다. 물에 빠지면 지루레기도 잡는다고 최악의 궁지에 몰린 《자한당》 패들은 또다시 《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매달려 살길을 열어보려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적당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배척기운을 판데로 돌리고 《보수대통합》으로 파벌의 위기에 서 벗어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는것이 《자한당》 패들의 속심이다. 그러나 제가 초래한 민심

들의 반공화국대결망동과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세가 긴장되어 친정위험이 초성되면 정세가 전제되고 녹아나는것은 민생뿐이다. 《자한당》의 《안보》라평은 민심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자한당》 패들의 동족대결망동에 등을 돌려주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 각계층은 일본의 경제보복행동에 맞장구를 치며 당국의 대일강경립장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있는 《자한당》을 아베일당과 한족속으로 몰아대면서 친일적폐청산과 《자한당》해체투쟁을 벌리고있다. 물에 빠지면 지루레기도 잡는다고 최악의 궁지에 몰린 《자한당》 패들은 또다시 《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매달려 살길을 열어보려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적당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배척기운을 판데로 돌리고 《보수대통합》으로 파벌의 위기에 서 벗어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는것이 《자한당》 패들의 속심이다. 그러나 제가 초래한 민심

《유신》독재자가 종말을 고한 후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12.12군국쿠테타와 5.17야소폭거, 광주대학살 등 갖은 범죄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강림한 전두환역도는 심입이 아닌 박정희의 친일매국기질 그대로 바다 건너 일본상전에게 갖은 아부와 굴종을 일삼았다. 전두환의 예비를 비롯한 그의 족속들모두는 일신의 향락과 더러운 권세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가 일제에 먹히고 민족이 매수난을 겪던 그 시기에 매국배족을 자칭하고나선 친일매국노들이었다. 이렇듯 철처한 친일주주였기에 전두환은 1981년 8월 일본-남조선 《의원련맹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보장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바다는 없는것과 같으므로 같은 령도에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제쳤다.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한 전두환의 쓸개빠진 소리는 과거 일제가 조선을 영인토록 식민지로 만들고있던 1930년대 중엽에 퍼뜨린 《내선일체》론의 복사판과도 같았다. 이처럼 친일망발을 마구 내뿜는 전두환은 실제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일본에게

《같은 령도》론을 편 전두환친일매국 《정권》

《유신》독재자가 종말을 고한 후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12.12군국쿠테타와 5.17야소폭거, 광주대학살 등 갖은 범죄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강림한 전두환역도는 심입이 아닌 박정희의 친일매국기질 그대로 바다 건너 일본상전에게 갖은 아부와 굴종을 일삼았다. 전두환의 예비를 비롯한 그의 족속들모두는 일신의 향락과 더러운 권세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가 일제에 먹히고 민족이 매수난을 겪던 그 시기에 매국배족을 자칭하고나선 친일매국노들이었다. 이렇듯 철처한 친일주주였기에 전두환은 1981년 8월 일본-남조선 《의원련맹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보장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바다는 없는것과 같으므로 같은 령도에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제쳤다.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한 전두환의 쓸개빠진 소리는 과거 일제가 조선을 영인토록 식민지로 만들고있던 1930년대 중엽에 퍼뜨린 《내선일체》론의 복사판과도 같았다. 이처럼 친일망발을 마구 내뿜는 전두환은 실제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일본에게

방하고 남조선을 일본화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1980년말에 벌써 제주도 를 려던일이 드나들수 있는 《자유지대》로 만들어 재침의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게 태양의 문을 활짝 열어준 전두환은 1982년에 부산의 일부지역과 알바다를 일본판광업체에 도박장, 매음장소로 바꾸고있으며 1983년 5월부터는 일본인들의 남조선에 대한 《출입권편의 확대》조치를 또다시 취하여 한번 받은 려권으로 계속 남조선에 드나들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두환의 집권시기 그 무슨 《대표단》, 《조사단》, 관광파의 명칭이아니 해마다 100만명의 일본인들이 남조선에 밀려들어와 제방처럼 활보하며 다녔으며 남조선은 일본콜과 일본노래, 일본노래, 일본영화 등 왜색왜풍이 더욱 판을 치게 되었다. 일본파의 《운명공동체》를 제창하고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떠든 전두환의 친일매국적행태는 1983년 1월 일본총리 나카소네의 남조선행각을 통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전두환은 광화문과 세종로 등 서울의 곳곳에 일장기를 띄우고 수많은 경찰병력을 내몰아 어마어마한 경

계진을 펼쳤으며 나카소네가 기여드는데 격분하여 투쟁에 나선 각계층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여 전철속에 끌어넣는 망동을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남조선에 기여든 나카소네와 2차례의 단독회담, 1차례의 공식회담을 통하여 《안보선인 새로운 높은 차원》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결락을 강화할공공기를 벌리었다. 그 결과는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작, 《두개 조선》의 고착화, 군사적인 협력의 강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12개 항목의 《공동성명》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나카소네를 환영하는 성대한 《미녀절대항연》을 베푼 전두환은 지난날 일본에서 널리 불리우던 퇴폐적인 류행가를 부르다못해 《나카소네 만세》를 세번이나 목이 터지게 웨치는 쓸개빠진 추태를 부리었다. 일본상진의 손발이 되어 나라를 팔아먹은 악명높은 《을사외적》들을 짚적벽을 회세의 친일매국노인 전두환이와 같은 역적들을 조장으로 하여 친일매국의 기질을 이어받은 《자한당》이 지금도 친일사대매국행위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이상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주광일**

《유신》독재자가 종말을 고한 후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12.12군국쿠테타와 5.17야소폭거, 광주대학살 등 갖은 범죄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강림한 전두환역도는 심입이 아닌 박정희의 친일매국기질 그대로 바다 건너 일본상전에게 갖은 아부와 굴종을 일삼았다. 전두환의 예비를 비롯한 그의 족속들모두는 일신의 향락과 더러운 권세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가 일제에 먹히고 민족이 매수난을 겪던 그 시기에 매국배족을 자칭하고나선 친일매국노들이었다. 이렇듯 철처한 친일주주였기에 전두환은 1981년 8월 일본-남조선 《의원련맹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보장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바다는 없는것과 같으므로 같은 령도에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제쳤다.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한 전두환의 쓸개빠진 소리는 과거 일제가 조선을 영인토록 식민지로 만들고있던 1930년대 중엽에 퍼뜨린 《내선일체》론의 복사판과도 같았다. 이처럼 친일망발을 마구 내뿜는 전두환은 실제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일본에게



《유신》독재자가 종말을 고한 후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12.12군국쿠테타와 5.17야소폭거, 광주대학살 등 갖은 범죄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강림한 전두환역도는 심입이 아닌 박정희의 친일매국기질 그대로 바다 건너 일본상전에게 갖은 아부와 굴종을 일삼았다. 전두환의 예비를 비롯한 그의 족속들모두는 일신의 향락과 더러운 권세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가 일제에 먹히고 민족이 매수난을 겪던 그 시기에 매국배족을 자칭하고나선 친일매국노들이었다. 이렇듯 철처한 친일주주였기에 전두환은 1981년 8월 일본-남조선 《의원련맹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안전보장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사이에서 바다는 없는것과 같으므로 같은 령도에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제쳤다.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도》라고 한 전두환의 쓸개빠진 소리는 과거 일제가 조선을 영인토록 식민지로 만들고있던 1930년대 중엽에 퍼뜨린 《내선일체》론의 복사판과도 같았다. 이처럼 친일망발을 마구 내뿜는 전두환은 실제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일본에게

자력갱생을 변명의 보검으로 들머지고

14년 만에 이룩한 사회주의공업화

공화국에서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결성한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감으로써 전후 빈터우에 주체공업의 터전을 닦고 14년만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업무를 완성하는 세기적인 기적이 이룩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제57(196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돐 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서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중심과업으로 한 제1차 7개년계획의 용대한 강령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공화국은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었다.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결과 공화국에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이 창설되었으며 공업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1957년부터 1970년에 걸쳐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성장하여 1970년에 공업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높아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

생산수단생산은 13.3배, 소비재생산은 9.3배로 높아 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업은 해방전 1944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들만 12월동안에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공업이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완비된 중공업으로 발전되어 그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경공업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어 방직공업, 식료가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이 현대적으로 꾸러지고 여러가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공업과 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56년에 34%이던것이 1969년에는 74%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에 농업과 농업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에서 공업의 몫은 25%로부터 65%로 높아졌다. 그리고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에 있어서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 따라 앞섰던 것이다.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되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이 실현되어 공화국이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

변되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공업국가로의 전변, 이것은 어비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공업화로의 선의 위대한 승리와 국가의 경제건설로선을 받들고 하루를 열흘씩 날맛같이 여기며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온 공화국인민의 불굴의 정신과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과물이었다.

공화국에서 공업화를 시작하여 완성하기까지의 기간은 기초축성단계를 합쳐도 14년 밖에 되지 않았다.

자본주의나라들이 웅근 한 세기 지어는 몇세기를 두고 진행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공화국은 그처럼 짧은 기간에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의 현실과 경제발전의 요구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적과정을 과학적으로 통찰한데서 공업화의 기초축성단계를 설정하시고 이미 5개년계획시기부터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 오시였으며 7개년계획기간에는 그 전면적실현을 중심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공업화를 하여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튼튼히 다질수 있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공업화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는것과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분의 전면적기술혁명을 실현하는 전 행정에 나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의 힘을 믿고 공업화를 한다는것은 하나의 망상이며 사대주의에 빠져서는 몇백년이라도 공업화는 고사하고 제대로 살아갈수도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하여 공화국에서는 곤난한 조건에서도 기술인재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자체의 기술력량을 예견성있게 준비하였으며 군중의 지혜와 내부에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부족되는 자금, 로력, 연료, 원료, 자체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결과 공화국에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한 결과 공화국은 낮은 사회의 윤희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보다 높은 단계에서 부강변영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준경

《애국가》는 공화국의 국가이다. 국가는 해당 나라의 기상이나 영예를 상징하여 국가적으로 부르도록 정한 노래이다. 즉 자기 나라를 가사와 선물로 사랑할 줄 아는 조국에 대한 송가를 말한다. 국가는 국장, 국기와 함께 해당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대와 같은것으로 간주되고있다. 국가가 가사와 선물로써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해주는것으로 하여 나라마다 국가창작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애국가》는 해방후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새 조국을 건설하던 역사적시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공화국의 국가이다.

《애국가》는 조국에 대한 송가로서의 사상예술적품격을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하고있다.

《애국가》는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와 전통, 인민의 불타는 애국열을 폭넓고 깊이있게 담고있다.

노래는 가사에서 조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며 그 품에서 사는 인민의 자부심이 얼마나 높은것인가에 대하여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시적형상으로 감동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은 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로운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가사에서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이라는 구절은 예로부터 해주는 아침의 나라로 불리우는 조선에서 태어난 남다른 긍지를 안고있는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하였다.

또한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오랜 력사속으로 찬란한 대동강문화를 꽃피운 조선에 대한 자부심을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라는 무게있고 깊이있는 시어들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라는 시어를 통하여 온 세계가 부러워하게 삼천리금강산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길이 빛내어가자고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애국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속에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민족적근지와 자부심, 열렬한 사랑이 차넘치게 하는 노래이다.

《애국가》는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나가며 공화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로 만방에 떨쳐갈 역사의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애국가》의 중요한 특징은 장중한 선율진행과 간결하고 뚜렷한 음악구조로 가사의 심오한 사상을 명백하면서도 깊이있게 부각시켜주고있는것이다.

《애국가》는 부를수록 장중한 선율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승엄한 감정으로 이끌어간다.

특히 선율의 둘째 부분인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의 시행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반복해주는것으로 가사의 심오한 뜻을 더욱 깊이 새겨 줄뿐만아니라 음악상조화도 잘 되고 음악적경서의 우아함과 장중성이 한결 더 높아지게 하고있다.

이처럼 《애국가》는 내용과 예술적형상에 있어서 심오하면서도 품위있는 국가로서 명곡중의 명곡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따라 《애국가》를 부르며 기적과 승리를 떨쳐온것처럼 오늘도 이 노래를 긍지높이 부르며 경에 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여 진리로 몸쳐진 역센 뜻은 세계 앞서 나가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속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라명진

산촌의 이채로운 양업풍경

우리는 얼마전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한 산촌을 찾았다. 사방 작은 산들로 둘러막혀있는데 팔을 따라서 시원하게 양어못들이 펼쳐져있었다.

이곳이 바로 신창 양어장이다.

양어장을 빙 둘러싼 높고 낮은 수려한 산발들, 정다운 물소리, 크고작은 수많은 양어못들과 못가에 실실이 늘어진 버들가지... 페부를 쟁하니 울려주는 싱그러운 산촌의 향기와 어울려 못들마다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물고기 냄새는 보는 사람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것이였다.

이곳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철갑상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양어못으로 향하였다.

파라란 물속의 철갑상어들은 어찌나 큰지 마치 바다속의 잠수함을 연상시켰다.

동행한 일군은 이 못에 7~10kg이상의 철갑상어들이 수백마리가 있다고 하면서 회귀한 물고기인 철갑상어가 여기 신창의 양어못들에 자기의 보

금자리를 펴게 된다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정이 깃들여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신창양어장의 이채로운 풍경은 철갑상어만이 아니였다.

철색송어비육못에 이르니 마침 먹이시간이어서 관리공처녀가 먹이를 주고 있었다.

더 많은 먹이를 먹으려고 물위로 튀어오르는 물고기들과 외갈과갈 물어버리는 수면... 옥실거리는 철색송어떼를 보느라니 물결반, 고기질반이라는 말이 절로 흘러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흥그롭게 해주었다.

우리는 울창한 소나무숲 가까이 자리잡은 알개우기장에 들렀다.

과학성과 위생성이 철저히 보장된 이곳에서는 현대적인 알개우기장치로 한번에 수십 만알의 물고기알을 깨운다고 한다.

이곳 일군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철갑상어의 양어를 시작할 때에도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선것이 알개우기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받이와 알개우기를 한해에 두번 진행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양어의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자연조건에서 잘 자라는 양어품종을 찾아내어 기르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장어양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일명 자치라고도 부르는 정장은 회귀하고 큰 육식성천물고기로서 기름지고 맛이 좋으며 빨리 크기때문에 경제적이 가치가 높은 물고기이다. 머지않아 양어못들에 새끼정장어들이 가득 들어차게 된다고 한다.

호호한 마음을 안고 알개우기장을 나선 우리의 눈앞에 주변의 숲과 조화를 이루며 양어못가에서 호호적이는 나무들이 안겨왔다.

동행한 일군은 지난 4월 이곳을 찾으신경에 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양어장 환경이 언제 와와야도 깨끗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이 가장 정확히 구현된 양어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 일군은 철색송어와 같이 랭수성물고기를 기르는 양어못쪽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주변풍치를 살리고 그늘이 지면서 물온도가 올라가는것을 막을수 있어 좋으며 나무에서 떨어지는 벌레들은 철색송어의 자연먹이로 리용할수 있어 일거다득이라고 하는것이였다.

참으로 산골에 펼쳐진 이채로운 양어풍경이었다.

본사기자 김철

활의 세부마다에는 불려만 봐도 가슴설레이는 우리의 것, 우리 식이 얼마나 많은가.

평양의 거리들과 동해의 항구도시를 누비는 우리 식의 무궤도전차들이며 만사람의 호평을 받는 우리의 경공업제품들, 우리 식의 국장과 병원들, 해상철길다리, 우리 식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어디 가나 《우리의것》, 《우리의식》이라는 부름을 붙여가며 이야기하는 기쁨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울려넘치고 그것이 마치 행복의 대명사마냥 정답게 불려지는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릉라인민유원지, 마식령스키장, 류경김치공장, 룡



나의 집은 룡명거리에 있다. 만리대공을 향하여 기운차게 솟구쳐오른 초고층, 초고속빌딩들과 아담하고 산뜻한 다층살림집들이 키돋움하는 룡명거리, 낮에 봐도, 밤에 봐도 황홀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거리이다.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천지개벽된 새 거리, 지금도 귀기울이면 12시간만에 한층씩 올리는 건설기적을 창조하면서 70층초고층살림집골조공사를 74일만에 완공한 건설자들의 호각소리, 증기계들의 동음이 교향악의 장중한 선율마냥 메아리쳐오는듯하다.

세상을 놀래운 룡명문화가 창조된 룡명거리야말로 력사의 돌풍을 파급히 쳐갈거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고있는 것이다.

어제 룡명거리뿐이라. 창건거리, 은하과학거리, 미래과학거리와 같은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날에날마다 태어나는 세월이 내가산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후두둑이 지는데 문득 눈앞에 책가방을 달랑거리며 마주오는 아들의 귀여운 모습이 안겨왔다.

저 어린 마음에도 《소나무》 책가방, 민들레학습장과 같은 우리의 것이 소중히 깃들여있다고 생각하니 범상하게 여겨지던 그 모든것이 더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와 아들의 모습에서 쉬이 눈길을 땄수 없다.

돌이켜볼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는 새 이름들은 우리의 생활에 속속들이 스며여 있다.

누구나 기쁨속에 즐겨 찾는 《대besan》 신발과 《철쭉》 양말, 《ginseng》 젓갈제품, 《ginseng》 식료품, 《대besan》 체육기자재, 풍요한 래일을 호호하게 그려보게 하는 《영우9》 호, 《애국품》, 《단백초》, 《ginseng》...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손으로 행복의 씨앗을 뿌리

고 땀흘려 가꾼 자력갱생의 열매들이기에 그 어떤 번쩍거리는 남의것에 비할바없이 소중한 애착이 가는것이다.

마식령속도와 만리마속도, 백두산영웅청년정신, 강원도정신과 더불어 날로 세차게 불어치는 자력갱생의 열풍속에 오늘 우리 생

활의 세부마다에는 불려만 봐도 가슴설레이는 우리의 것, 우리 식이 얼마나 많은가.

평양의 거리들과 동해의 항구도시를 누비는 우리 식의 무궤도전차들이며 만사람의 호평을 받는 우리의 경공업제품들, 우리 식의 국장과 병원들, 해상철길다리, 우리 식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어디 가나 《우리의것》, 《우리의식》이라는 부름을 붙여가며 이야기하는 기쁨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울려넘치고 그것이 마치 행복의 대명사마냥 정답게 불려지는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릉라인민유원지, 마식령스키장, 류경김치공장, 룡

악산비누공장,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비롯하여 날과 달을 이어 놓여나가는 뜻깊은 새 명칭들을 꼽아보자고 해도 하루해가 모자랄 것이다.

한적하던 속성에 눈부시게 솟아오른 과학기술전당과 더불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이 몰아치고 새라새로운 이름들이 생활의 공간과 세부들에 차고넘칠 것이니 어찌 놀라운 이 현실을 노래하지 않을수 있으랴.

늘어나는 새 이름들과 더불어 더욱 아름다워지는 조국강산, 여기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는 격정과 행복감에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번영의 상징탑과도 같은 룡명거리의 70층살림집에서 나는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다시금 안아본다.

김길철

새로 개건된 조선우표박물관을 찾아서 (7)

조선우표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박물관에 대한 참관을 이 어가며 우리는 세상에 다시 없을 송고한 도덕의리 세계를 담은 우표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표, 《민주대 대기념비》 우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기념》 우표...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친년만년 길이 모셔갈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진 우표들을 보느라니 수령영생 위업에 쌓아올린 정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쓰겁게 되 세겨졌다.

이러 우리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장엄한 투쟁을 보여주는 다양한 내용의 우표들도 돌아보았다. 《정치사상적위력 강화》 우표, 《전당에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는 혁명적당풍을 세우자》 우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우표...

한 령도밑에 온 나라 인민이 새로운 건설신화를 창조하며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 온 나날을 긍지스럽게 돌이켜보게 해주는 우표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힘찬 투쟁을 벌려 온 나날에 이룩된 소중한 성과들이 반영된 우표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먼 훗날 후대들은 오늘의 이 우표들을 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온 전세대대의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겨나오리라.

본사기자 류현철 (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



리용가치가 큰 해바라기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گی작물인 해바라기는 먹는기름문제해결에서 매우 좋은 작물이다. 우선 기름의 질이 아주 좋다. 해바라기기름은 해바라기씨의 속살에서 짜낸 기름으로서 연한 누른색을 띠는데 향기롭고 맛이 특별히 좋으며 영양가와 약효가 높다. 그런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용, 유체와 함께 널리 재배되고있다. 씨앗의 기름 함량은 45~50%이며 기름에는 비타민A, D, E와 생물학적활성물질인 리놀렌산과 올레산이 각각 50%, 30% 정도 들어있다. 이 지방산들은 피속의 콜레스테롤함량을 낮추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병 등

을 막는 작용을 한다. 해바라기기름은 그 맛이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여러 가지 요리가공에 널리 쓰이고있다. 해바라기는 먹는기름 외에도 빵, 과자, 통조림, 인조버섯 등 여러가지 식품을 만드는데 리용되고 있다.

병발생위험성 높을 예민한 머리카락

비정상적으로 머리칼이 빠지거나 자라는것, 머리칼과 머리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지는것, 비듬이 생기는것 등은 병발생위험을 알리는 증상들이다. 윤기가 없거나 끝이 갈라지거나 기름기많은 머리칼은 인체에 그 어떤 물질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된다. 실제로 건조하면서 갈라지는 머리칼은 단백질과 비타민A, 아연, 기름산이 부족하며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기름기많은 머리칼은 아연과 철분, 비타민B이 부족하다는 표시이다. 뻣뻣한 머리칼은 단백질과 비타민A가 부족하고 갑상선기능이 떨어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머리칼끝이 갈라지면 철분과 비타민B, 마그네슘이 부족한 아연이 부족하고 빈혈증이 있다는 신호일수 있다. 일찍이 흰머리카락이 나오면 이것은 스트레스의 후파이거나 호르몬 관련문제, 비타민B군과 동, 엷산 부족으로 인한것이다. 머리비듬은 진균감염과 스트레스 그리고 비타민B 혹은 아연, 주 요기름산의 부족으로 하여 생길수 있다. 본사기자



해바라기는 정보당 기름생산량이 비교적 높은 작물로 인정되고있다. 해바라기는 정보당 씨앗수확량이 2일 때 기름생산량은 600kg정도이다.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도 버릴것이 없다. 기름을 짜낸 껍데기는 단백질이 30%정도 들어있어 좋은 집집승먹이로 된다. 해바라기는 좋은 꿀원천으로 된다. 1정방에서 100~150kg의 꿀을 생산할수 있다고 한다. 해바라기는 꽃이 크

농업연구원 실장 한진수

질 좋은 대성산샘물이 생산된다

이름을 《대성산샘물공장》으로 명명해주시고 공장배치 계획안과 설계안도 몸소 지도해주시었으며 건설방향과 방향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 건물에 들어서니 샘물생산장과 용기세척장, 용기생산장, 분석실, 종합조종실, 제품건조실, 제품창고가 유리간막으로 철저히 격벽되어있었다.

자동화, 흐름선화가 실현된 생산공정들에서는 질 좋은 샘물들이 생산되고있었다. 손가락크기만 한 소체가 여러 가공공정을 거쳐 순식간에 0.5L수직병으로 변하며 어느새 작업장의 한쪽 공간을 꽉 채우며 무드기 쌓이고있었다.

용기세척장에서는 세척된 용들이 콘베이어를 타고 2차세척기에 이르러 또다시 세척되어 샘물생산장으로 편이여 흘러들어가고있었다. 무균화, 무균화가 실현되고 모든 공정이 하나의 흐름선으로 이어진 깨끗하고 정갈한 일터에서 질 좋은 샘물이 줄줄이 흐르는 모습은 볼수록 멋있었다.

여기서 일하는 한 녀성도 동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샘물은 맛도 좋을뿐 아니라 수질도 대단히 좋습니다. Ca, Mg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필수광물 성분들이 매우 풍부히 들어있어 이발과 뼈발육을 좋게 합니다. 특히 샘물속에 들어있는 수소산이온농도가 높아 소화가 잘되게 하며 심장혈관질환, 동맥경화, 골송송증을 예방하고 만성위염, 대장염,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어 생산을 시작할지 얼마 안되었지만 벌써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이러 우리는 종합조종실에도 둘러었다. 생산현장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 조종실에서 모든 공정들을 컴퓨터로 감시조종하고있었다. 생산지령원의 말에 의하면 설비뿐 아니라 자동조종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된것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생산공정전반이 현대화, 자동화, 정보화, 과학화된 멋쟁이공장이었다. 분석실비들이 그쯔외 갖추어진 분석실을 거쳐 제품건본실에서 둘러니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샘물이 전시되어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니 맛 좋고 수질 좋은 대성산샘물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샘물병마다에 어려웠다.

본사기자 김영춘



수박은 두 사람이 마주서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자기를 방어하면서 손으로 장대방을 쳐서 넘어뜨리

것을 보여준다. 고려시기에는 군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주 수박경기대방을 쳐서 넘어뜨리

수박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 전범으로 불리었다. 1692년 박천군수였던 량익명은 주먹으로 돌을 쪼물 뿐 아니라 네사람이 련방 던지는 돌을 손으로

전통무술 - 수박

여러 고구려무덤의 벽화들에 수박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있을것을 보아 고구려때의 수박이 그대로 후세에까지 전해져왔다는

를 진행하였으며 우수한 사람을 전업적인 군인이나 지휘관으로 선발하고 상도 주었다.

수박은 고려시기 군인들속에서 여러가지 동작과 기법을 가진 무술단련놀이로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사화

조현과 7백의사 (2)

글 오희복, 그림 채대성

조현의 의병부대는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 관원들이 싸다니며 의병들을 마구 잡아갔다. 사연인즉 판관에서 도망친 《군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것이였다.

그러나 실지는 판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과 가족들 할것없이 모조리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의병부대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가족들도 놓아주지 않았다.

죽음을 뻔하면서도 서슴지 않고 싸움의 길에 나선 용사들이다. 마침내 조현은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만 나날 길만이 있을뿐이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니 이 아니 몇몇하라. 죽고살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에서 의병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7백의사는 한결같이 비장한 결의를 다졌다. 적들이 조종과 화포를 쏘아대며 개미떼같이 언덕으로 기어올랐다.

판관이 난데 걸쳐 배족적인 윤선각의 만행에 의해 마을의 인심은 더욱 흉흉해졌고 아낙네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대사를 그르치겠는가.》 윤선각의 만행은 계속되었 으며 마침내 조현의 주위에 지 가족을 뺏기면서도 오로지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려는 700명의 의로운 용사들만이 남았다.

《호랑이》로 이름난 양춘삼의 이글이글 라는 눈이 먼저 떠졌다. 두드러진 광대뼈 밑에는 청주싸움에서 입은 상처자국이 아직도 뚜렷하였다.

《이놈들이!》 조현의 벽력같은 웨침이 들리자 의병들은 일시에 내달았다. 그들의 서리찬 칼이 번쩍일 때마다 적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조현은 윤선각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윤선각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다.

《대장님, 윤선각이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선각이부터 치는것이 옳은가 봅니다.》 격분에 찬 의병들이 저마다 제의했다.

《이놈들이!》 조현의 벽력같은 웨침이 들리자 의병들은 일시에 내달았다. 그들의 서리찬 칼이 번쩍일 때마다 적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이놈들이!》 조현의 벽력같은 웨침이 들리자 의병들은 일시에 내달았다. 그들의 서리찬 칼이 번쩍일 때마다 적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대장님, 윤선각이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선각이부터 치는것이 옳은가 봅니다.》 격분에 찬 의병들이 저마다 제의했다.

《대장님, 윤선각이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선각이부터 치는것이 옳은가 봅니다.》 격분에 찬 의병들이 저마다 제의했다.

《대장님, 윤선각이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선각이부터 치는것이 옳은가 봅니다.》 격분에 찬 의병들이 저마다 제의했다.

《대장님, 윤선각이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선각이부터 치는것이 옳은가 봅니다.》 격분에 찬 의병들이 저마다 제의했다.

《대장님, 윤선각이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선각이부터 치는것이 옳은가 봅니다.》 격분에 찬 의병들이 저마다 제의했다.

《대장님, 윤선각이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선각이부터 치는것이 옳은가 봅니다.》 격분에 찬 의병들이 저마다 제의했다.

《대장님, 윤선각이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선각이부터 치는것이 옳은가 봅니다.》 격분에 찬 의병들이 저마다 제의했다.

《대장님, 윤선각이를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선각이부터 치는것이 옳은가 봅니다.》 격분에 찬 의병들이 저마다 제의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이때 두팔에 장검을 높이 휘두르며 손살같이 적진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삼시간에 적의 시체가 무더기로 나뉘고 있었다. 《귀신같은 장수다!》 어느 놈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적진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뒤따라 올라오

7백의사들에게 어지간히 타격을 받은 놈들은 감히 접어들지 못하고 멀리 밀려가 피상한 소리를 지르며 한동안 악작거리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의병부대가 의로운 형세에 처한것을 타산한 적들은 얼마간 숨을 돌리자 또다시 벌판으로 밀려왔다. (끝)



고국원왕룡(안악3호무덤)벽화의 수박그림

유명인사

랑 쪽에 다 종게

젊은이 1: 《생원님, 오늘 아침에 그만 남산이 무너졌 습니다.》

젊은이 3: 《생원님, 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갔다 하 는데 대체 그게 있다고 있습니까?》

생원: 《그런가? 하긴 오랜 세월 풍우에 높고 시달렸 으니 제아무리 산이라고 해도 그대로 있을수가 있겠나. 견딜수가 없지.》

생원: 《무얼 그리 이상해 하나? 원래 소란 높은 성질이 어리숙하고 미련한 놈이 어서 비록 쥐구멍이라도 무작정 들어갈지?》

젊은이 2: 《아무리 남산이 높고 오래되었다 하기로 서니 그 큰산이 무너졌더니 말이 됩니까?》

젊은이 2: 《야무리 어리 석은 놈이라 허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소가 쥐구멍에 들어갈수 있습니까?》

생원: 《글쎄, 자네 말도 옳겠네. 산이라는것은 우가 좋고 밀이 넓을뿐 아니라 튼튼한 바위들로 영겨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리가 있을라구. 그럴리가 없지.》

생원: 《자네 말도 파히 그른 말은 아니네. 소란 놈은 두 뿔이 있는 짐승이니 구멍으로 들어갈때야 뿔이 걸려서 못 들어갈지야. 그렇지 않은가?》